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January No.108

NH-Amundi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본부

작성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027호]
(2026.01.08~2027.01.07)

 NH-Amundi자산운용

시장전망

· CIO 칼럼	03
· 국내 주식 시장 전망	04
· 국내 채권 시장 전망	05
· 해외 주식 시장 전망	06
· 해외 채권 시장 전망	07

CIO 칼럼

'26년, 韓 성장률 1.8%,
기준금리 1회 인하 전망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8%, 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해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건설투자의 부진이 그 마이너스 폭을 상당수준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상반기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부동산가격의 상승,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수출주도의 성장률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 인하가 되지 않고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의견까지 대두 되었으나 여전히, GDP갭이 마이너스인 것에 대한 우려가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고, 내수 회복의 속도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대책과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등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 상반기 1회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재차 인하 사이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OVID19과 12.12계엄에 따른 전년비 노이즈가 사라지면 그 이전 지속되었던 장기성장률 하락 요인, 즉 노령화,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Source :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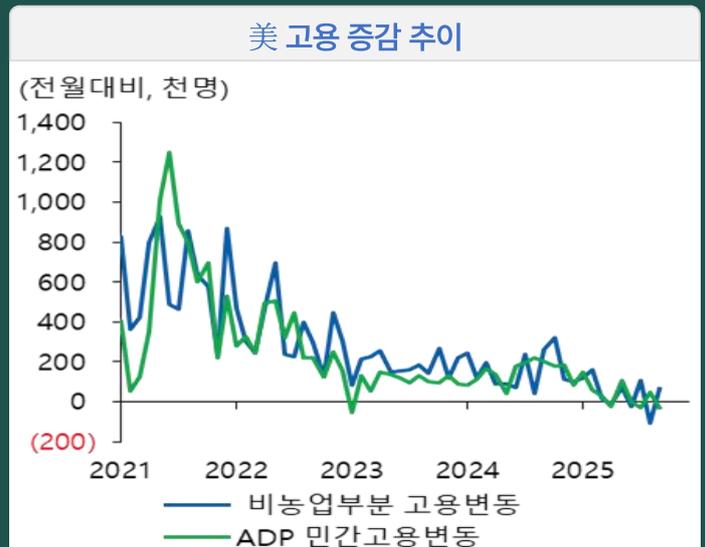
국가별 상이한 통화정책 사이클,
美 금리인하재개, ECB 동결, 日 인상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고용부진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초에 발표된 물가 지표도 그간의 상승우려와 달리 서비스물가 중심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 ~ 3.25% 까지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합니다.

일본은 쌀 가격 급등 등 공급 견인 인플레이에 이어 임금인상이 서비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물가 상승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25년 12월에 금리인상을 실행했고, 내년 중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합니다.

ECB는 美 관세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 되겠지만 그간 8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대출 및 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기간 동결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은 주요국들의 상이한 통화정책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rce : Bloomberg



한수일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채권/ETF운용부문 총괄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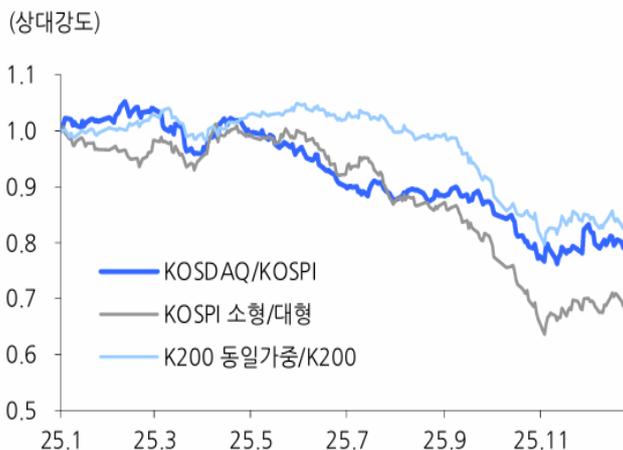
시장전망

11월 조정을 겪었던 KOSPI는 12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 23일 기준 4.8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KOSDAQ은 +0,75% 상승) 예상대로 미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글 제미나이 3.0 공개로 OpenAI의 독주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고,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완공 지연 및 자금 협약 결렬 소식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컨센서스를 압도하는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며 AI 버블 및 수익성 논란을 완화시켰고, 국내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운송, 방산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화장품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2026년에도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테마는 여전히 AI가 될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구조, 파급 효과의 깊이를 요구하고 있기에, 2026년은 '증명의 해'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때문에 종목 선별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월은 통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가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11월을 기점으로 KOSDAQ 및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으며,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등 구조적 개선책은 KOSDAQ 시장에 확실한 정책적 모멘텀을 더해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11월 저점 형성 후 회복중인 KOSDAQ 상대강도



* 출처 : 현대차증권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산업 예시



인공지능 인프라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신재생 에너지



ESS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 포착

주주가치 제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중복 상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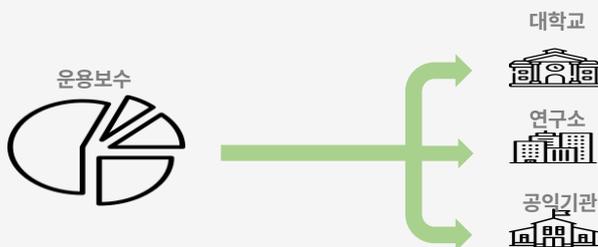
배당 분리 과세에 따른 수혜 기대



주주친화적 기업의 재평가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C	C-P1	C-P2
선취수수료	1%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62%	1.00%	0.70%	0.68%
운용보수	0.9%			
기타보수	수탁 0.02%,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12월 국고채 금리는 월초 위축된 투자심리 하에 일본 금리 급등 등 주요국 통화 긴축 재개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상승하였으나, 중순 이후 저가 매수 수요 유입 및 당국의 시장 안정화 발언 등으로 재차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ECB)과 호주중앙은행(RBA)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예상에 더해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상' 언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BOJ)은 12월 금정위에서 금융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상을 11개월만에 재개했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12/24일 기준 국고 5Y 전월말 대비 +4.2bp)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연준 내 위원 간 견해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음을 시사했던 10월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연준은 '26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초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 임기('26.5월) 내에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성장이 견조한데다 노동시장도 급격한 하강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2월 내 부동산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1월부터는 고환율의 수입물가 상승 영향도 나타나기 시작해, 환율 안정이 금리 인하의 선결 과제라는 판단입니다. 외환당국이 연말 증가 관리를 위한 대대적 구두 및 실개입에 나서며 원·달러 환율은 최근 고점 대비 50원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의 강한 환율 안정 의지가 시장의 상승 기대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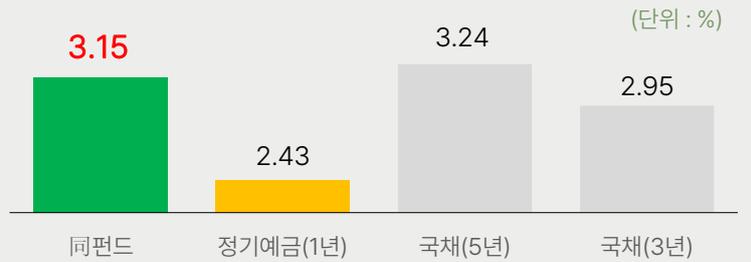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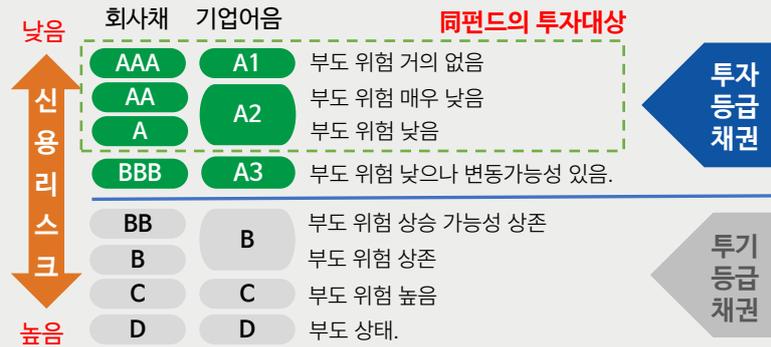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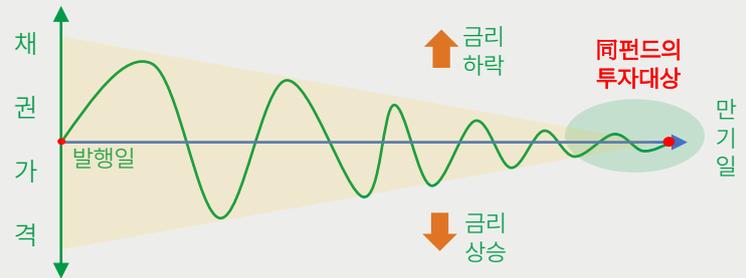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5년 12월 31일 기준)

2.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3.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2	C	C-P1	C-P2
선취수수료	0.3%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05%	0.30%	0.19%	0.18%
운용보수	0.075%			
기타보수	수탁 0.01%,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12월 글로벌 주식 시장은 월 초 중반의 상승세가 월말 들어 다소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초 발표된 예상을 하회한 인플레이션과 둔화된 고용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킨 가운데,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으며, 단기 금융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채 매입 재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는 향후 인하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완만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성명서의 톤은 다소 매파적이었으나,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증시는 경기 민감주와 소형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직후 발표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은 시장을 실망시키며 다시금 AI 과잉투자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였습니다. 기술주에서 경기민감주, 가치주 등으로의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 AI 및 기술주 등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세는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2026년 시장에 대해 월가는 대부분 낙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친화적인 연준 의장 임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세금 환급, 규제 완화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관세의 영향은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관련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며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나, 유동성과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는 가운데 대체로 양호한 증시 상황을 예상합니다.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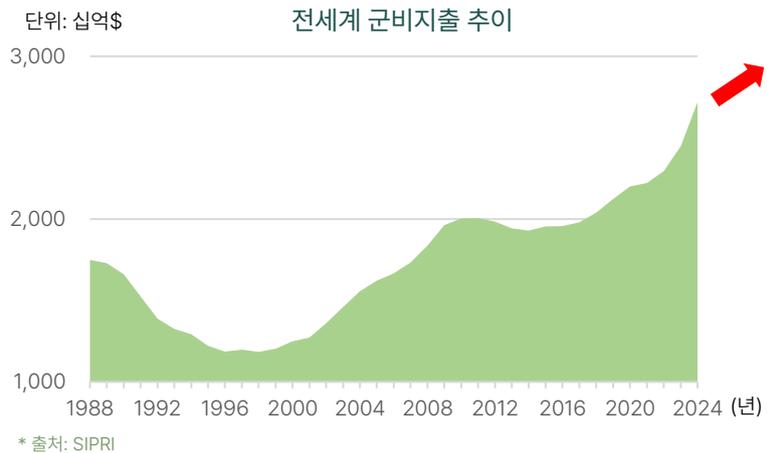
1 2 3 4 5 6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1.0%이내	0.5%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70%	0.35%	0.85%	0.80%
운용보수	0.80%			
기타보수	수탁 0.06%, 사무관리 0.02%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12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며 금리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25bp 인하가 예상되었으나, 이미 시장에서 상당부분 반영을 한 상황에서 유럽의 기준금리 동결, 일본의 +25bp 금리 인상은 내년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Fed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또한 금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높이며,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10년물 +15bp, 독 10년물 +17bp)

1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금리가 횡보세를 보이며 다소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IT기업들의 해고와 공무원 해고의 증가로 다소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지표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주거비가 완화되며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차기 Fed 위원장에 대한 지명이 예상되는데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12월 FOMC에서 '26년 1회 인하 점도표보다 다소 많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기되며 1월은 12월에 상승한 금리를 일부 되돌리며 마감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나, 3월 인하 가능성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회사채 펀드입니다. 12월에 상승한 금리를 일부 되돌리며 안정되며 듀레이션이 다소 긴 해당 상품에 양호한 성과가 예상됩니다..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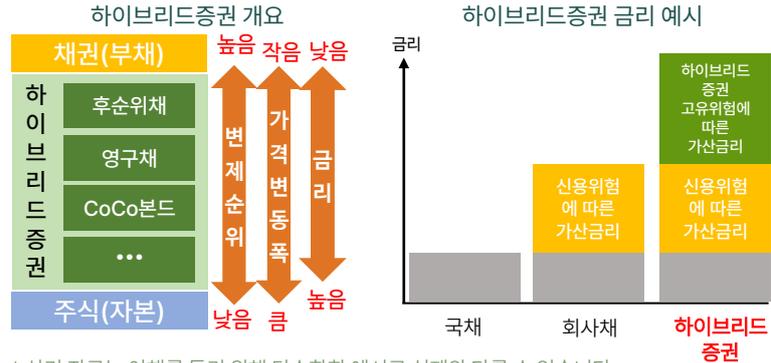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자산신탁(H/UH)[채혼-재간접형]

1 2 3 **4** 5 6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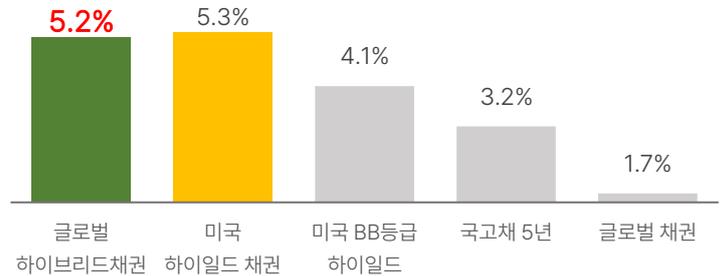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2025년 11월 31일 기준, 해외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15% 달러/원 -2.28%) 수치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p>프랑스 전력공사</p> <p>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 신용등급 : BBB+(S&P)</p>	<p>도이치뱅크</p> <p>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 : A(S&P)</p>
--	--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0.8%이내	0.4%이내	-	-
할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50%	0.25%	0.45%	0.42%
운용보수	0.40%			
기타보수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본 자료 제공 이후 또는 이전에 발생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표시한 제반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은 경우 절대로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규약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지금 현재 시점의 시장상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귀사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작한 것이므로, 귀사는 본 자료를 투자자에게 배포하거나, 본 자료의 내용을 발췌·인용하거나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상품 취득의 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 ~ 100%)이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 자산투자 시)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현황, 시장전망 등은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